

전남 시·군 '절반' 고향상품권 발행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1곳 (50%)이 지역화폐의 일종인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아직은 가맹점 수와 판매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19일 광주 리더스 Info에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증가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김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2018년 기준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전통시장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10% 내외 할인 판매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영암군이 선정된 바 있다.

“상당수가매점 · 판매금액 미미”

“상인 · 소비자 공감대 형성 시급”



하지만 아직은 상당수 지체가 가매점 수와 판매금액이 미미한 수준이며, 구매자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상인과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가맹점 발굴 및 확대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 강화 ▲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상품권 활용범위 확대 검토 ▲지역맞춤형 판매촉진 전략 ▲규제 장치, 자금조달 방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상품권의 발행비용 감소, 부정유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대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화폐, 핀테크 기반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와 사전적 검토 및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우리은행, 올해 전체 신입직원 1000명 채용

우리은행은 올해 그룹 전체의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100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채용 인원은 모두 1018명으로 지난해 신입 채용 규모인 827명보다 191명(23%) 증가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채용 인원을 늘린 것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별로는 우리은행 750명, 우리카드 100명, 우리에프아이에스 136명, 기타자회사 32명을 채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채용규모를 확대했다”며 “하반기 채용도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상반기 신입직원을 240명을 채용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우리은행이 개인금융서비스 직군과 일반직 등 추가로 510명을 뽑고, 우리카드도 100명 규모의 신입직원 채용에 나선다. 다른 자회사들도 9~10월중 신입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5월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 ↓ · 여신 ↑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여신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5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신은 전월 1조3204억원에서 5721억원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이 위축된 반면 지방정부 교부금 유입 등으로 정기예금이 늘어났지만 전월 7045억원세 6640억원으로 줄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전월 6159억원에서 9199억원으로 감소세 전환했다.

다. 5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규모는 전월 9859원에서 37199원으로 확대됐다.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전월 9859원에서 37199원으로 늘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둔화돼 증가폭이 전월 2484억원에서 1821억원으로 축소됐다.

서은홍 기자

이통3사, 신규 데이터 요금제 비교해 보니

적게 필요한 고객 SK텔레콤 선택 유리...3만3000원 1.2GB 사용량 많은 고객 LG유플러스 유리...8만8000원 무제한 제공

요금제명	데이터량	요금
SKT	요금제	1.2GB 3만3000원
SKT	데이터	4GB 5만1000원
SKT	프리미엄	100GB 8만9000원
SKT	프리미엄	150GB 7만9000원
SKT	프리미엄	무제한 15만
KT	LTE프리미엄	1GB 3만3000원
KT	프리미엄	3GB 4만9000원
KT	프리미엄	100GB 6만9000원
KT	프리미엄	무제한 8만9000원
LGU+	데이터프리미엄	300GB 3만7800원
LGU+	프리미엄	무제한 8만8000원

를 선택해야 가장 저렴하면서도 혜택이 많을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객은 1.2GB를 3만3000원에 제공하는 SK텔레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고객은 8만8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를 택하는 것이 낫다.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어떤 통신사도 데이터 사용량이 유동적인 고객은 3GB, 100GB 등 기본 제공 데이

터에 속도 제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KT의 증가 요금제(4만9000원, 6만9000원)를 고르는 것이 선택지다.

SK텔레콤이 전남 선보인 신규 요금제 'I플랜'은 ▲1.2GB, 3만3000원 ▲4GB, 5만1000원 ▲100GB, 6만9000원 ▲150GB, 7만9000원 ▲무제한, 10만원으로 구성됐다.

KT가 지난 5월 내놓은 요금제 '데이터N'은 ▲1GB, 3만3000원 ▲3GB, 4만9000원 ▲100GB, 6만9000원 ▲무제한, 8만9000원의 선택 폭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월 8만8000원으로 무제한 LTE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규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해 “검토 중이지만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나온다

현대차-마블 협업 개발...내년 초 주문 생산



코나의 아이언맨 에디션이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19일(미국 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열린 2018 코믹콘 개막식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 마블과 협업해 개발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내년 초 글로벌 동시 판매 이벤트를 통해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차량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주문은 특정기간 1회 한정으로 받는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마블 캐릭터를 적용한 전세체 최초의 양산모델이다. 마블과 현대차 디자인의 공동협업을 통해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슈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코나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아이언맨 스페셜 에디션 쇼카'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이번에 공개된 양산형 모델은 쇼카의 디자인을 최대한 구현하면서 내외장의 디테일을 추가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외장컬러는 1963년 마블코믹스(만화책) 시리즈 중 하나인 '네일즈 오브 서스펜스'에 첫 등장한 아이언맨의 오리진 스킴과 같은 짙은 회색이다. 또 최신 아이언맨 슈트로부터 영감을 받은 빨간색이 포인트로 사용됐다.

전면부는 ▲마블로고가 새겨진 전용 후드 디자인 ▲아이언맨 마스크의 눈매를 닮은 분리형 주간 주행등과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램프 ▲다크 크롬 베젤이 적용

된 짙은 회색 그릴 ▲전용 레드 컬러 가니쉬가 적용됐다.

측면부는 ▲아이언맨 마스크 메탈릭 배트 ▲아이언맨 마스크 휠캡이 탑재된 18인치 루톤 휠 ▲스타크 인터스트리(아이언맨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운영하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도어 ▲레드 컬러 사이드미러와 사이드 가니쉬 ▲아이

언맨 슈트의 근육질 형상을 연상시키는 리어필러(C필러)가 적용됐다.

후면부에는 번호판 위 가니쉬에 아이언맨 레터링을 음각으로 새겼다. 레드 컬러의 루트루프 위에 대담하게 그려진 아이언맨 마스크도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만의 특징이다.

실내공간 역시 짙은 회색과 빨간색이 기본 컬러다. 아이언맨 마스크와 로고가 적용된 시트,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그래픽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특수 설계된 전용 클러스터와 오디오 비디오투비게이션(AVN) ▲새로운 디자인의 기어노브 ▲크래쉬패드 위에 새겨진 토니 스타크의 서명 등으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만의 생동감과 독특함을 강조했다.

마블의 조 큐에사다 COO는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마블 캐릭터를 적용한 양산차인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 탄생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언맨"을 선택한 이유는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첨단 안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라는 코나의 상품 포지셔닝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디자인 뿐만 아니라 현대차메트릭스 등 다양한 첨단안전 편의사항과 주행성능을 갖춰 내년 초 국내시장에서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마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히어로 드림라 베어데블, '제시카 존스', '아이언 피스트', '루크 케이지' 등에 제네시스와 쏘나타 등을 출시했다. 이달 초 개봉한 '엔트 맨과 와스프'에서도 벨로스터, 코나, 싼타페가 등장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